



VALUE INVEST KOREA

2017년 10월 둘째주



빅팟게임즈



블루사이드



로커스



헤드플레이



VENTURE STORY



풀3D PC게임 신작 '가면무사' 첫선

- 팡스카이, 풀3D PC게임 신작 '가면무사' 첫선, 사전등록
 - 신작 PC게임 <가면무사>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
 - <가면무사>는 가면시스템이 핵심인 풀 3D 그래픽의 PC웹게임
 - 현존 웹게임 중 최상위 수준의 그래픽과,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, 무한 육성의 재미를 핵심 콘셉트
 - 게임내용 : 천계와 인간계, 그리고 명계가 공존하는 신선시대가 배경, 삼계를 점령한 악마 '혼돈천존'을 제거하는 내용
 - <가면무사>의 사전등록은 팡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


<건그레이브 VR> 일본 PS ‘앞으로의 주목 타이틀’ 선정

- <건그레이브 VR> ‘앞으로의 주목타이틀’ 선정
 - PSVR 측의 주요게임 중 하나로 자리매김
 - 지난 도쿄게임쇼2017에서 게임 시연
 - 일본 언론의 주목
 - VR에 최적화되어 구현
 - 2017 하반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로 출시
 - PSVR 출시 이후 오쿨러스, 바이브 등 인기 VR 하드웨어로 런칭 예정



제 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참가

■ 워크 인 프로그레스 : 빨간구두와 일곱난쟁이

- 제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프로그램
- 김상진 감독과 홍성호 감독의 작품 소개 및 제작과정 이야기
- 홍성호 :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<원더풀데이즈>의 CG감독 / <사막의 기적> 감독
2007 KBS TV 애니메이션 <파워 쿼텟맨> 제작
2009 로커스 공동설립
2017 현재 로커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장
<빨간구두와 일곱 난쟁이> 감독
- 김상진 : <라퐁젤>, <겨울왕국>, <빅 히어로>, <모아나> 등 캐릭터 디자인
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최초 한국인 애니메이터
한국 최초로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오스카 회원
<빨간구두와 일곱 난쟁이 > 애니메이션 감독

※ 제 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(BIAF2017)

- 기간 : 2017.10.20(금) ~ 2017.10.24(화)
- 장소 : 부천시청, 한국만화박물관, CGV 부천, 메가박스코엑스
- 주제 : 애니펀 (ANI + FUN)
- 성격 : 일반 경쟁을 포함하는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
- 주요사업 : 애니메이션영화제 / 애니메이션 페어 / 학술포럼 / 전시 / 공식행사 / 기획행사 / BIAF365 애니시네마



영화 <강철비> 파격적인 홍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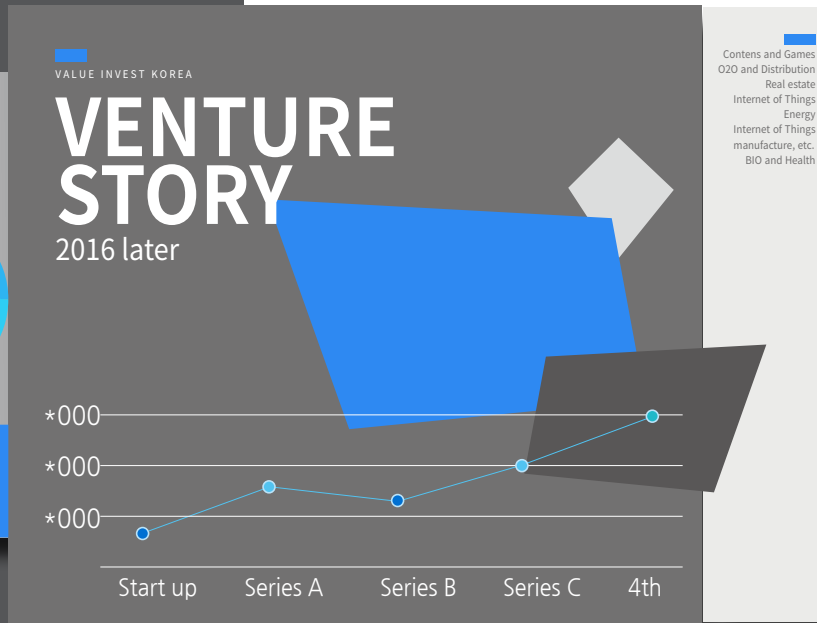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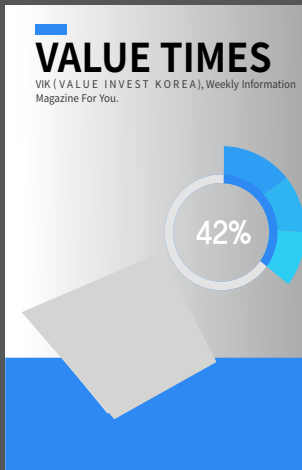
- 영화 <강철비> 핵대사 클립 공개
 - 추석연휴기간 주요 포털 및 SNS를 통한 클립영상 공개
 - 촌철살인 대사들의 클립 영상

※ 영화 <강철비>

- 양우석 감독 : 영화 '변호인'의 감독으로 유명
- 배급사 : NEW
- 개봉예정일 : 2017.12
- 내용 : 어느 날 북한 구테타로 북한의 권력 1호와 정예요원이 남한으로 피신하며 벌어지는 일촉즉발 한반도 최대 위기

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

제14회 2017.10.11



- 기술창업 스타트업 전용 M&A 장터 열린다
- '기업가치 1兆넘는' 스타트업, 美 107곳 한국 2곳뿐



M&A

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기업의 인수·합병이다. 보통 M&A는 피인수 대상기업의 의사에 따라 우호적 M&A와 적대적 M&A로 구분된다. 기업의 매각이나 매수에 관해 쌍방간 동의가 이루어지면 우호적 M&A로, 그렇지 않을 경우 적대적 M&A로 분류된다.

우호적 M&A는 해당기업 간 수의 계약(隨意契約: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)이나 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, 적대적 M&A는 공개매수·위임장 대결·시장 매집 등의 방법으로 행해진다.

기술창업 스타트업

전용 M&A 장터 열린다

-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인수합병(M&A) 전용 장터가 열릴 예정
 - 기술 기반 초기기업에 대한 M&A 활성화를 위한 기본 여건 조성
-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중으로 기술창업 스타트업 전용 M&A 거래정보망을 구축
 - 기존 거래정보망에 기술창업 스타트업 전용 메뉴 신설
 - 우수 자문기관과 지원센터가 유망 M&A 희망 기업을 발굴
- 실제 현재 M&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350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업종, 희망매도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정보가 부족한 상황
- 국내 대형 M&A 매물은 회계법인 또는 외국계 증권사가 독식
 - 중소형 매물은 소규모 부티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신뢰성 부족
- 지금까지 국내 M&A 시장이 성장 동력 확보보다 지배구조 개편 또는 구조조정에 집중됐던 것도 문제
 - 정부의 M&A 지원 정책 대부분이 창업 3년 이후 벤처기업에만 집중
-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13조10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M&A 시장은 2015년 96조2000억원으로 15년간 7배 증가
- 일부 소수 초대형 거래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내 M&A는 100억원대 소규모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이 대상



기업가치

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.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를 더하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순차입금(차입금-현금성 자산)을 더해 구한다.

'기업가치 1兆넘는' 스타트업

美 107곳 한국 2곳뿐

- 미국이 전 세계 '유니콘(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)' 213개 중 절반을 배출 : 한국 스타트업은 쿠팡·엘로모바일 등 2개뿐
- 중국은 스타트업 강국인 미국을 빠르게 추격 중 : 중국에선 올해만 16업체가 새롭게 유니콘으로 등장 , 미국의 신규 유니콘은 18업체
→ 한국은 2업체 배출국. 그러나 3년째 새로운 유니콘업체가 없음
- 비상장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'우버(약78조원)', 2위는 중국판 우버 '디디추싱(약57조원)', 3위는 중국의 IT 기기 제조 업체 '샤오미(약53조원)' / 한국의 쿠팡은 기업가치 28위, 엘로모바일은 34위
- 신규 유니콘들은 헬스케어, 자율주행차,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사업에서 주로 등장